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울리에나 매카시나’

핀 베어백 전 감독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이 제라르 울리에(60·프랑스), 마이클 매카시(48·아일랜드) 감독 중 한 명으로 2~3일 안에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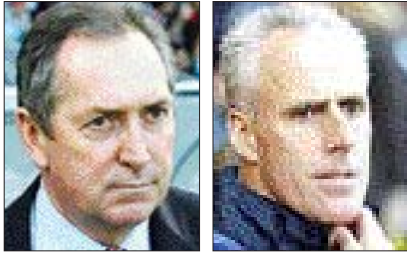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은 5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김남일(수원), 정경호(전북), 김두현(성남)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혼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 인선 문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몽준 회장은 “2~3일 안에 결정이 난다. 이제 80%까지 진척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모두 확인했고 계약상 남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울리에, 매카시 감독이 (협상 대상자가) 맞다. 우리는 기술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축구협회가 차기 감독 대상자의 실력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언론에 거론되는 대상자들이 실

### 한국축구대표 차기 감독 2~3일내 최종 결정될듯



〈울리에〉 〈매카시〉

재와 다르다면 축구협회가 연락을 해줘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울리에, 매카시 감독과 계속 접촉해왔음을 재차 확인했다.

정 회장은 “유럽 현지에 가 있는 가상현 시무총장과 아직 통화를 하진 못했다. 내일 들어온다면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가능한 걸로 본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하고 그 쪽에서도 빨리 연락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6일부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부터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사령탑은 울리에와 매카시 감독으로 압축됐다.

1990년대 프랑스대표팀 사령탑을 지내고 리버풀(잉글랜드), 올랭피크 리옹(프랑스) 감독을 맡았던 울리에 감독은 프랑스축구협회 기술고문 자리에 앉아있으며 현재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도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매카시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아일랜드를 16강에 올려놓았을 이후 선덜랜드 감독을 거쳐 올버햄프턴(잉글랜드 챔피언십)을 지휘하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에서는 울리에 감독을 1순위로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카시 감독과도 협상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천수 재도전 다행”

“이천수 재도전 다행으로 생각한다.”

네덜란드프로축구 리그(에레디비지)에 진출했다 적음 실패로 방황한 이천수(26·페예노르트)에 대해 소속팀 페예노르트의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이 처음 입을 열었다.

그동안 이천수 문제에 관해선 페예노르트의 피터 보츠 기술이사가 주로 언급해왔고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말을 아꼈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팀은 이천수의 조속한 적응을 위해 다른 선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코리야타운까지 소개해줬다. 또 네덜란드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천수가 개인차를 무시한 훈련량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던데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훌륭한 대표급 선수라면 그 정도 훈련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천수가 그동안

### 페예노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

“이제 팀에 보탬 되는 선수 되길”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로 구단에 실망을 시켜서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전해들었다. 앞으로 페예노르트에서 다시 도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다”며 “이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주 휴가를 얻어 국내로 돌아온 이천수는 11~12일께 출국해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올림피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 최종전 샤흐타르와 벤피카의 경기에서 샤흐타르의 토마스 뢰스만(오른쪽)이 벤피카의 누노 아시스와 공 두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스코틀랜드 셀틱 16강행

### AC밀란에 지고도 조 2위

스코틀랜드 프로축구의 간판 클럽인 셀틱이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 6차전에서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 AC밀란(이탈리아)에 무릎을 꿇고도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셀틱은 5일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 메차스타디움에서 치러진 AC밀란과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25분 백전노장 필리

포 인차기(34)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셀틱은 3승3패(승점 9)로 조 2위를 확정, 이미 16강행을 획득한 AC밀란(4승 1무1패·승점 13)과 함께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내심 기적의 16강행을 노리던 샤흐타르(우크라이나·2승4패·승점 6)는 벤피카(포르투갈·2승1무3패·승점 7)를 홈으로 불러들여 치른 D조 최종전에서 1-2로 패하면서 꼴찌로 밀려났다.

나머지 조들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12일과 13일에 치러지고, 16강전은 내년 2월에 시작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베어백 전 한국대표팀 감독

### 호주·이란서 동시 ‘러브콜’



2007 아시안컵 축구에서 3위를 차지한 뒤 스스로 한국대표팀 사령탑에서 내려온 핀 베어백 감독이 호주와 이란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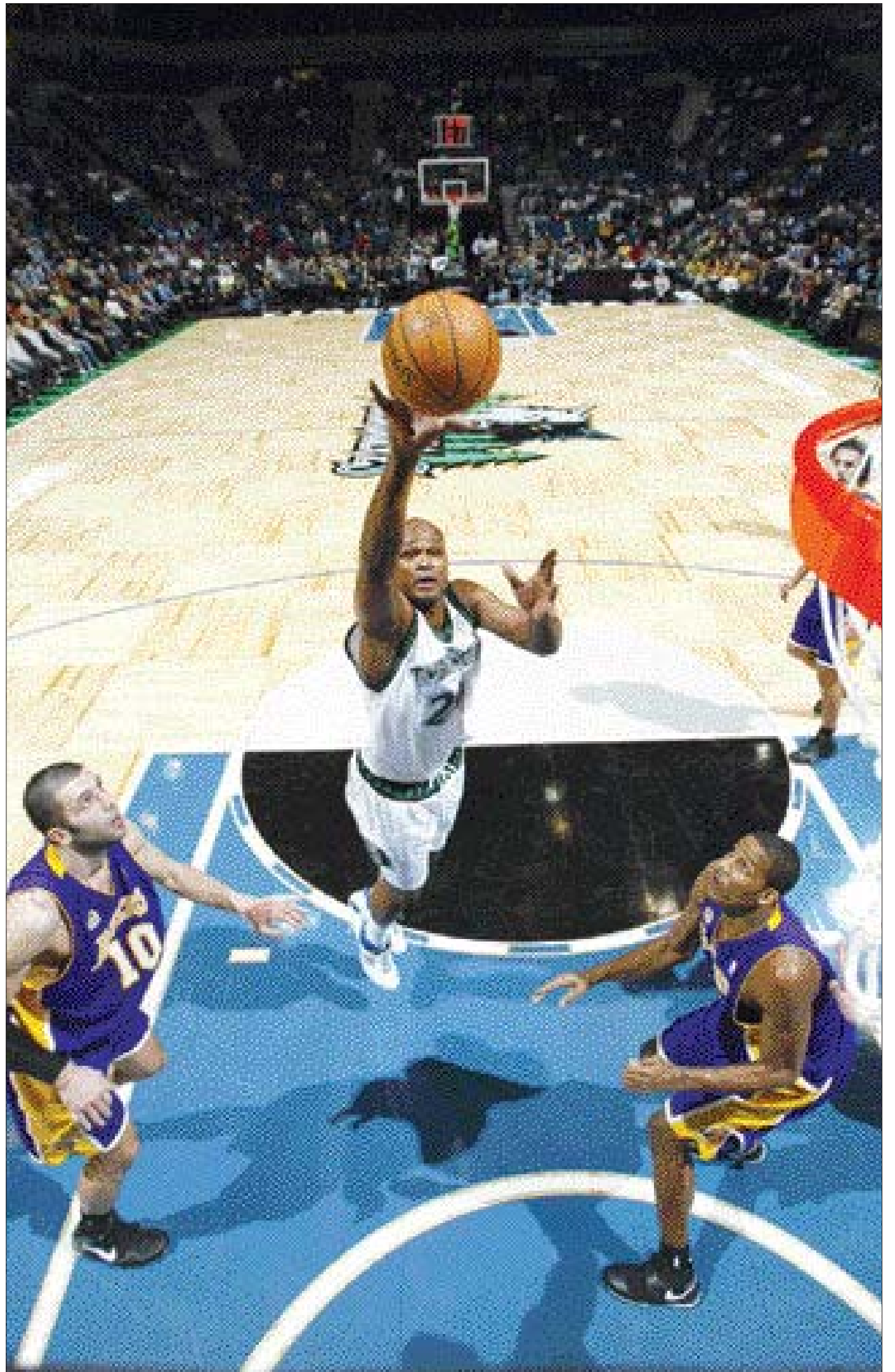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흐라프’는 5일(한국시간) “핀 베어백 감독이 호주대표팀 뿐 아니라 아시아의 축구강국 이란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 대표팀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함께 한국대표팀 코칭스태프로 일했던 압신 고트비 감독이 연결고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시안컵 이후 베어백 감독과 함께 한국 대표팀 코칭스태프에서 사임한 고트비 감독은 자신이 태어난 이란으로 돌아가 명문 페르세폴리스의 사령탑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란대표팀 사령탑은 2007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에 승부차기로 패한 뒤 아미르 갈레노이에 감독이 해임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고트비 감독이 베어백 감독을 이란축구협회에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맡았던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과 더불어 유력한 호주 신임 감독 후보로 떠오른 베어백 감독은 이란대표팀 사령탑 제의까지 함께 받는 등 ‘인기 상한기’를 달리고 있다.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5일 미국 미네아폴리스 티켓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LA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안토니 워커(가운데)가 숭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LA레이커스가 116-9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2부리그 경험 쌓은 후 프리미어리그 입성”

### 성남 김두현 잉글랜드행 추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진출을 추진중인 김두현(25·성남 일화)이 2부리그에서 경험을 쌓아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두현은 5일 오전 결혼 인사를 하기 위해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래 해외 진출이 꿈이었다. 영국 축구는 선수로서 한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곳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진흙인형 축구스타들 뭐하나?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의 한 크리스마스용품점에 프로축구 바르셀로나FC의 리오넬 메시와 호너우지뉴, 사무엘 에토, 티에리 앙리(왼쪽부터) 등의 진흙인형 ‘카가너(cagner·카탈루냐말로 ‘정화기’)가 전시 돼 있다. 바르셀로나 등이 포함된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가너’가 배설물을 만들어 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다음해엔 번영과 행운 등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 실업축구 우승 미포조선 내년 K-리그 합류 가능성

2007년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내년 프로축구 K-리그로 승격할 자격을 얻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 예정대로 K-리그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강제는 한국 축구를 활기차게 끌어가게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포조선 단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승격 문제는 축구계의 큰 흐름과 원칙 안에서 봐야 한다. 현실을 감안하면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이 이처럼 승강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면서 미포조선 문제도 잘 해결될 전망이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	골프장	시세
광주	3,500	광주	9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한평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